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사법 리스크' 여의도 휩쓰나

선거법 위반 시효 10월10일
여야, 10~20여명 이룰 수도
이재명 재판 일부도 선고 가능성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를 앞두고, '여의도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정가를 휩쓸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중 일부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여의도 정치 지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추후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야 인사는 10여 명 수준이다.

다만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서 의원 역시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1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등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의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은 검찰 등 수사당국을 향해 급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巨野)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무리한 기소나 무더기 기소가 있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두 자릿수를 넘는 야당 의원이 기소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야당이 그만큼 많은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여야 관계도 더 냉각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온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임박을 준비 중인 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현역 의원 기소 외에 민주당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이미 알려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현재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역시 10월 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선거법 리스크'를 우려하던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위기에 서 벗어난다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법 기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이라며 "기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내부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가운데)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갈등 중재' 나선 한동훈, 정치력 시험대

국힘 지지율 하락 위기감... 의료계 접촉하며 중재역 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정치인의 역량'도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일단 불발됐지만, 연휴 기간 의료계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여론 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한 대표가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해 왔다. 한 대표에게 공감하는 의료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회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의료계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증원' 의제화를 놓고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문제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의료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일단 불발됐다.

한 대표는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선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물밑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연휴 기간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며 협의체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제 제한 및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고 한 대표 측은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소방서 격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이처럼 협의체 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과 정부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위기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

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 떨어지며 각각 20%, 2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의료계 설득에 성공해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면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겠지만 실패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한 대표의 중재 역할에 대한 여론 내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한 대표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 덕분에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 대표가 당정 간, 또는 당내 소통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석 이후 '채상병-김건희 특검' 정국 대응도 한 대표의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9일 본회의의 처리를 예고한 두 특검법에 반대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상병 사건 등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 대표 입장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여론 추이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물론, 민생·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대야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오늘부터 체코 순방

내년 수교 35주년 앞 관계 격상 등 논의... 원전·첨단산업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총 24조원 규모의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 계획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가능성에 정 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기간은 오는 2박 4일로 길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연세 회담을 통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인 만큼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프라하에서 90km 정도 떨어진 폴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